



일면 스님은 ...

1947년 경북 영해 출생. 1959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명허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5년 중회의원과 조계종 제3대 교육원장, 남양주 봉선사 주지, 광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을 맡아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 매일 되돌아보고 매일 처음처럼 사세요

일면 스님은 바빴다. 조계종 균종교구장과 광동학원 이사장 소임을 내려놓았으니 요즘은 한가할 것이라는 나그네의 생각은 잘못이었다. 조계사 인근에서 일면 스님을 자주 보았다는 기억에 그 날도 서울 근처, 적어도 스님이 주석하시지는 남양주 불암사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빠! 스님은 멀리 계셨다. 나그네가 일면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부산을 향하는 길이었다. 큰스님을 나그네의 알은 중생심으로 헤아린 과보일 게다. 일면 스님과 통화를 마친 나그네는 부리나케 먼 길을 달렸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는 참 빠르다. 천안을 지날 무렵 창밖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앞으로 사라졌다. 차들은 왜 나그네의 뒤가 아니라 앞으로 사라졌을까? 그렇다. 나그네는 역방향 좌석에 앉았다. 5% 요금할인을 받고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앉은 것은 아니었다. 미리 여정을 챙기지 못하고 바빠 길을 나선 댓가였다.

문명이란 좋다. KTX가 아니었다면 나그네가 감히 일면 스님을 쫓아 부산을 내려갈 엄두나 냈을까? 또, 나그네의 가방 가득 담긴 핸드폰과 노트북, 티-로그인(휴대접속용 인터넷)이 없었다면 큰스님의 친견을 다음으로 기약했을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몸도 생각도 쉬었으면 좋았을텐데, 나그네는 그렇지 못했다. 밀린 일을 쌓아두고 길을 나선 이가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하거란 사치를 떠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그네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노트북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간간이 피로한 눈을 쫓는다는 핑계로 창밖의 차들이 앞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즐기면서, 문명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지만, 그 댓가로 '나'를 잃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 인(人)은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문자란다.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누가 그랬을지 따져보고 싶은 상황이 발생했다.

KTX 일반석의 팔걸이가 문제였다. 워드 작업을 하느라 노트북을 펼친 나그네에게는 활개치고 여객을 펼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팔걸이에 팔을 걸쳐야 했다. 열차리에 앉아 신문을 보던 사내도 나그네와 같았다. 말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집중해서 노트북을 두드리는데 푹 푹 건드리는 사내에게 짜증이 났다. 나그네가 극장 등에서 비슷한 경우를 겪었을 때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팔걸이를 좌우가 아닌 상하로 나누어 쌍방이 말없이 눈치로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달랐다. 적당하게 상하를 나누어 양보할 만큼 해졌음에도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일하는데, 한가로운이 신문 보는 네가 좀 양보해라"라는 말을 사내에게 하지도 못했지만 할 필요

도 없었다. 나그네와 사내, 둘 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앉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실랑이를 했을까? 노트북 배터리가 줄어있는 양으로 봐서는 긴 시간이었는 데 나그네는 아직도 일 하나를 끝내지 못했다.

대구역에서 사내는 내렸다. 사내가 내리고 나니 옆 빈자리도 나그네 차지이 될 수 있었다. 끌어안고 있던 가방을 놓을 수도 있었지만 놓지 않았다. 누군가

님이 되면 공부만 할 수 있겠다 싶어, 나머지 3권도 의무했다며 출가했다. 하지만 나무꾼이었던 스님은 출가 후 20년이 되도록 <법화경>을 모두 외우지 못했다. 오히려 의무고 있던 4권마저 모두 잊어 버렸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사내는 나그네가 일하는데 있어 마장이었다.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겠다던 나그네의 초심은 사내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일이나 사내 탓, 팔걸이 탓으로 변해 있었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했지 주변 탓을 하며 마음을 빼앗길 것은 못했다. 팔꿈치로 가르침을 줬던 사내에게 감사하고 나니 노트북 위에 얹은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인다.

그런데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제는 환경이고 마음이고 무엇도 탓할 게 못된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어릴 적 거리다 부산에 도착한 나그네는 노트북을 덮으며 "사람 몸 받고 태어나 사는 동안은 아무 탓도 말고 그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금강사주지 혜성에서 만난 일면 스님은 나그네의 다짐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온 선지식이다. 특히 스님은 그저 바른 뜻으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스님은

전날 경주에서 불교계 각 종단지도자 모임인 백상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제주도를 찾기에 앞서 스님은 한일불교교류협회 한국측 여성부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 도반인 주지스님을 만나고 있었다.)

한때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선을 하며 입적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균종교구장 시절에는 빗물이 새는 등 다 쓰러져 가는 군병당을 보고도 돈이 없어 안타까워 한 적도 있었다. 스님은 꺼져가는 한 생명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새 삶을 얻었고, 대중의 도움을 받아 반듯한 군병당을 척 척 지어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역시 스님의 뜻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 일면 스님의 뒤에는 은사인 명허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13세에 출가한 일면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 선방수좌였던 은사 스님을 시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일면 스님이 하루는 은사스님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고 난 뒤였다. 일면 스님은 심부름으로 딸신, 비누 등을 사고 100원이 남아 눈감사랑을 사먹고 돌아왔다. 쉼을 하던 은사스님이 "돈 100원이 맞지 않는다"며 묻자, 일면 스님은 "눈감사랑을 사먹었다"고 말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은사스님은 "너 같이 시운을 가버려 여기는 높은 중노릇할 자격이 없다. 절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일면 스님은 빌고 또 빌었다. 두어 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었더니 은사스님이 "3000배를 하고 오라"며

바른 뜻으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져  
장기기증 받아 새생명... 생명나눔실천본부 일귀

다시 와서 앉을 것 같아 빈자리를 반대로 뒀다. 나그네는 그저 마음껏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돼 기뻐했다.

사내가 사라지고 팔걸이도 차지했지만 나그네의 일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왜일까?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다. 불심도 깊었던 나무꾼은 오며 가며 <법화경>을 외우고 또 외웠다. 하지만 7권 중에 4권 이상은 외워지지 않았다. 나무꾼은 나무무하느라 바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파느라 시간이 없어 외워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무꾼은 스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주사**

##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만 양장 / 424쪽 / 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28쪽 / 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일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만 양장 / 304쪽 / 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심구제,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만년, 율 마니 반대 음,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윤창화·일지 지음 / 46만 양장 / 352쪽 / 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열반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9,500원

**왕초보, 범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범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만 양장 / 278쪽 / 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만 양장 / 320쪽 / 9,500원